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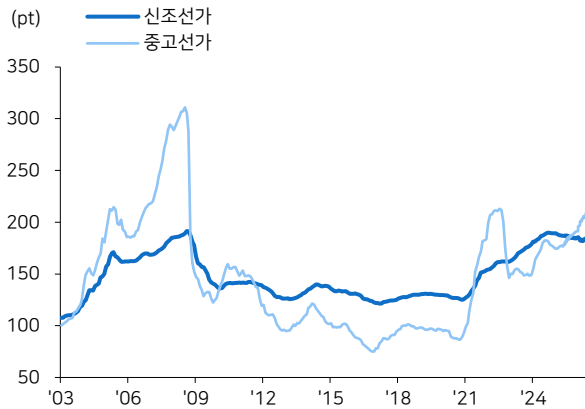


2026. 5. 13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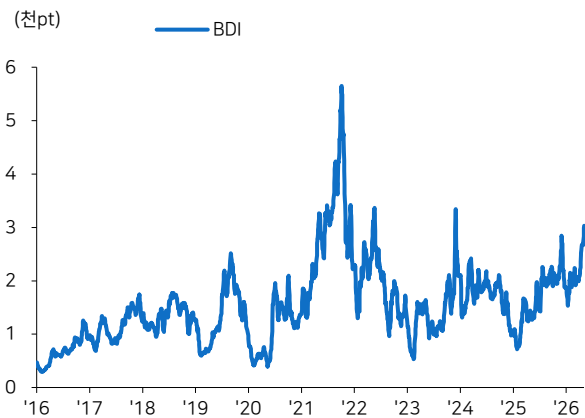
신조선가 184.4p (+0.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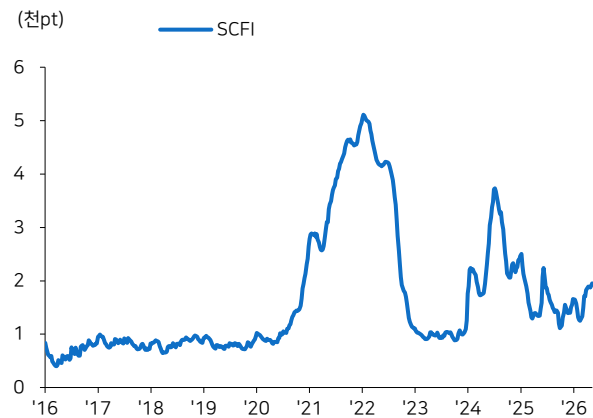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6.0달러 (+20.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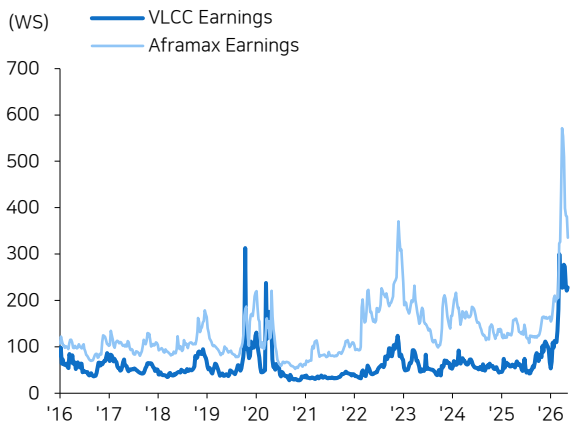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001.0p (+2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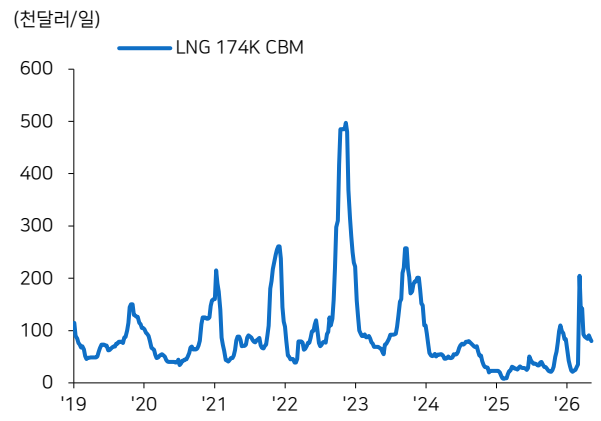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954.2(+42.8 WoW)



VLCC Spot Rate 227.8WS (+7.0p WoW)



LNG Spot 운임 80.0천달러 (-5.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엄청난 기회 온다..."1 척당 21 조" 한국 조선소 '들썩' (한국경제)

<https://zrr.kr/cT0cam>

미 해군이 중국 견제를 위한 해군력 복원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등 우방국 조선소에서 함정 모듈을 제작하고 보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규 함정 건조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55년까지 '황금함대' 구상의 핵심인 트럼프급 전함 15척을 도입할 예정이며, 자국 조선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산업 역량을 결합하는 '통합 산업 모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해짐. 이에 따라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이 함정 블록 제작 및 보조 함정 수주 기회를 확보할 전망이며, 특히 민감하지 않은 선체 모듈의 해외 하도급 생산이 가능해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노조, 월 기본급 149,600 원 인상 요구안 확정 (헤럴드경제)

<https://zrr.kr/PJKUQq>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12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월 기본급 149,6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보도됨. 요구안에는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AI 기술 도입 시 노조와 합의를 통해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짐. 노조는 조만간 사측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내달 상건례를 가질 예정이며, 이번 교섭에는 사내하청노조도 참여하여 원청과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원하청 공동 교섭 진행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고 알려짐.

George Economou splurges \$242m on VLGC newbuildings at South Korean yard (TradeWinds)

<https://zrr.kr/17ZHPL>

그리스 선주 George Economou가 HD현대중공업에 VLGC 2척을 추가 발주하며 신조 선대 확장에 나섰다 보도됨.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로부터 약 3,521억 원(2억 4,170만 달러) 규모의 수주를 발표했는데, 업계에서는 George Economou의 TMS Cardiff Gas를 실제 발주처로 지목하고 있다고 전해짐. 해당 선박들은 암모니아 선적도 가능한 사양으로 2029년 3월까지 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짐. 최근 중동 분쟁에 따른 운송 거리 증가와 미국 프로젝트발 LPG 생산 확대 기대감으로 VLGC/VLAC 발주가 급증하는 가운데, TMS Cardiff Gas는 이번 계약을 포함해 총 6척의 VLGC 수주잔고를 확보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짐.

Sanctioned LNG carrier in limbo as India rejects Russian gas (TradeWinds)

<https://zrr.kr/YxCqjP>

인도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LNG 도입을 거부함에 따라, 해당 화물을 적재한 LNG 운반선 'Kunpeng'호가 싱가포르 인근 해상에서 행선지를 정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라고 보도됨. 영국과 우크라이나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 선박은 러시아 발틱해 Portovaya 터미널에서 LNG를 선적한 뒤 인도 Dahej 터미널로 향했으나, 인도 정부가 지난달 말 러시아 측에 제재 대상 LNG 수입 불가 방침을 전달하면서 입항이 좌절되었다고 전해짐. 인도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가스 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제재 화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새로운 가스 판로를 개척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이 국제 제재망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고 알려짐.

Venture Global expects to be loading over 90 LNG carriers per month by 2029 (TradeWinds)

<https://zrr.kr/D01Llx>

미국 LNG 생산 기업인 Venture Global이 향후 2년 내 생산량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 월간 수출 규모를 90척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올해 1분기 Venture Global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0척의 화물을 수출하며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에 힘입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60% 급증한 46억 달러, 순이익은 23% 증가한 4억 8,8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전해짐. 회사는 현재 건설 중인 CP2 프로젝트의 투자 확정과 Plaquemines 프로젝트의 4분기 상업 가동을 통해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TotalEnergies 및 Vitol과의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LNG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알려짐.

Second Qatari LNG cargo emerges en route to Pakistan after 'dark' Hormuz passage (TradeWinds)

<https://zrr.kr/hIB6EG>

이란이 파키스탄행 화물을 적재한 QatarEnergy 소속 두 번째 LNG 운반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인 'Mihzem'호는 보안상의 이유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이란 해안에 밀착해 항해한 뒤 오만만을 통과했으며, 오는 14일 파키스탄 포트 카심 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으로 전해짐. 미국과 이란 사이의 평화 협상을 중재 중인 파키스탄은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란 측에 자국향 가스 화물의 통행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현재 해협 내에는 약 11척의 LNG 운반선이 잔류 중이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